



## 雲館軸小考

박 동 춘

〈한학자, 전통차 이수자〉

운관축(雲館軸)은 시축(詩軸)의 일종이나 전축(全軸)이 모두 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축(軸)이란 두루마리 형태로 된 시집인데, 불경같은 것은 수진본, 혹은 권자본(卷字本)이라하여 목판이나 활자로 인쇄하여 소장하기 간편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고, 옛날 선비들은 시회(詩會)를 열면서 그 회중에서 지어진 시를 기록하고 시회의 취지를 대략적으로 기록한 시축이 있다.

운관은 이 시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회를 주관한 분의 號로 금각(金栢)이란 분이다. 경상도 함양인으로 운관이란 號말고도 운와(雲臥), 운옹, 운암거사 등과 같은 별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의 생몰년대는 현재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17C~18C로 추정하고 있으며, 범해스님의 시고초(詩稿抄)에 호남칠고봉(湖南七高朋)중에 한 분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시축에서 열거된 인물의 면면을 미루어 볼때 당대 경상도지방의 이름높은 유학자(儒學者)였을 것이다. 이분은 초의스님과 절친한 사이로 많은 서신과 시를 교환한 간찰과 시집이 있다. 이 시축은 한지를 이어 붙여서 긴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었고 그 길이만도 5m가 넘는다. 단정한 필체의 행서(行書)체로 쓰여져 있고 첫장에 운관축 임인십월일(雲館軸 壬寅十月日)이라 기록되어 있다. 차행(次行)에 부대둔칠사(付大菴七師)라 하여 대둔칠고승(大菴七高僧)들에 대한 칭송이 찬(贊)이란 형식으로 칠편(七篇)의 칠언시(七言詩)로 二行씩 쓰여져 있다. 일사(一師)에 한편의 찬을 올린 것이며, 이 고승(高僧)들은

17C~18C에 걸쳐 대둔사에 주석하시던 스님들이다. 범해스님의 동사열전(東師列傳)을 전고해보니 칠사(七師)께서는 불교의 선과 교에 밝으신 선승이며 강백이었다. 부대둔칠사찬(付大菴七師贊)에서 연배나 승통으로 보아 호의스님이 초의스님보다 연배이며 승가의 형이 되니 첫 찬에 두어야 할 듯하나 초의스님을 첫 찬에 둔 것은 금각(金栢)이 초의스님을 위해 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운관축이 만들어진 연대는 대략 18C로 추정하고 있는데 축의 첫머리 임인(壬寅)이란 간지와 초의유고(草衣遺稿)에 유금강산(遊金剛山)에 대한 시문이 있는데 이것이 지어진 시기가 1838년이고 보면 임인은 1842년이 될 것이다. 이 시축에서 주목되는 것은 호의스님의 찬이다. 호의스님은 1778년 출생하여, 1796년 화순 만연사에서 출가하여 1868년에 열반하셨던 스님으로 호의는 스님의 법명이다. 호의스님은 완호스님의 제자로 초의 하의스님과 불가의 형제지간이다. 일찍이 호의스님은 문장에 뛰어났으며 담백한 생활을 즐겼다. 당대의 학자들과 교류했는데, 추사 김정희, 해거 홍석주, 백파, 신헌, 다산 정약용 등이 있다. 호의스님의 저술로는 자술행장 1권(自述行狀一卷), 견문록 1권(見聞錄一卷)이 남아 있다. 특히 본 시축에서 호의스님의 찬을 살펴보면

縞衣<sup>1)</sup>不換錦衣華  
一炷名香一茶碗  
大菴山裡長春<sup>2)</sup>景

수勝桃花洞<sup>3)</sup>裏花

흰 김옷 비단옷으로 바뀌지 않고,  
名香 사르며 차 한사발,  
대둔산 장춘동의 아름다운 경치  
도화동의 꽃보다 더 빼어나.

차생활의 질박함을 잘 표현한 찬이다. 차 한사발, 향 하나. 얼마나 담백한가! 물에 비친 밝은 달을 보고 있는 기분이다. 진실로 차가 군자에 비견된다면 다생활(茶生活)의 백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모든 물질의 풍요를 물리치고 선미의 차한잔을 무엇과 견줄 수 있겠는가! 남녘에는 봄소식이 완연하다. 고목에 핀 빼어난 매화를 보고 그 감흥에 겨워 한잔의 차를 다려 매화꽃잎을 띄워보자. 봄의 감상에 이보다 절미한 맛은 없으리라. 장춘동 긴 계곡은 골골이 도화동이라. 망화교에 걸터 앉아 선미에 들었을 노승의 모습을 그려보면, 진부한 욕심은 사라지고 고요한 한 순간이 마음에 자리할 것이다. 다시 시축을 살펴보자, 손때 묻은 두루마리를 다시 펼치면 초의원래 십일월 십일일(草衣遠來 十一月十一日)이라 쓰여진 글의 내용은 자못 애뜻하다. 초의스님이 운관을 찾아와 반갑게 해후하는 모습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실제 그 정황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 초의 이래속이부지(草衣以來宿而不至)란 제하의 글에서는 초의스님이 오셔서 유숙키로 약속을 했으나 오지않아 기다리는 심회를 적어 놓았고, 초의내숙(草衣來宿)에서는 초의스님이 유숙하시며 나눈 정회를 적고 있다. 초의화금강산(草衣話金剛山)은 초의스님이 금강산을 다녀와 그 절경을 얘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사회방서(四會訪序)에서는 운관, 오하사, 김석루, 초의스님이 함께 모여 시화가 이루어진 연유가 기록되어 있다. 사회방서에 수록된 내용이 흥미롭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초의스님이 늦게 운관의 집에 이르러 늦은 저녁을 먹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졸음이 와서 팔을 베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언뜻 창문에 두어 사람의 그림자가 문에 스쳐 지나갔다. 얼른 일어나 문을 열어 보니 상월(霜月)은 하늘에 가득하고 땅위에 사람의 그림자 두어인이 비쳤다. 한 사람은 오하사요, 한 사람은 김석루라. 모두 초의스님이 왔다는 풍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 온 지우(知友)들이다. 이들을 맞이하여 촛불을 밝히고 빙 둘러 앉으니 4인의 고회(高會)가 되었다. 임인중동 십삼일(壬寅仲冬 十三日) 밤에 쓰다. 이 사회방서를 읽고 있으면 그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아른거린다. 멀리서 초의스님이 왔다는 풍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 새로이 촛불을 밝히고 원으로 둘러앉아 화롯불에 찻물을 올려놓고, 반갑게 해후했을 4인의 고봉(高朋), 공자께서도 봉우원방래, 불역낙호(朋友遠訪來, 不亦樂乎)라 하였던가! 세상에 아름다운 만남은 차향의 향기처럼 향기롭고 물처럼 담백한 것이다. 한 잔의 차로 흥취를 더하여 지은 시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의 감흥을 발흥했으며 따뜻한 정회는 현대인의 시린 가슴을 녹일 수 있으리라. 시축의 말미에 사학천의매분(謝鶴泉 醫梅盆)에는 매화를 대하여 느낀 감회를 기록하였다. 한 쪽에는 매화 한 분을 한편에서는 다관에 차를 다리면서 매화를 의인화한 대목에서는 인물을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하며 피(彼)와 차(此)에 대한 분별심이 떠난 달관의 경지를 보는 듯 하다. 모든 일상사의 갈등은 저것과 이것을 구분하고 경계를 긋는 일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일찌기 부처님께서 설파하지 않았던가, 차생활의 기본은 공평한 마음가짐과 분별심을 버리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경칩이 지나고 곡우가 되면 또 한 해의 차를 만들 수 있겠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연과 내가 함께 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운관축에서 보여준 여러 고봉들의 정감을 함께 느끼며 시축을 덮어 놓고 한잔의 차를 다려보아야겠다. ☺

1) 編衣: 스님의 호이나 흰 김옷을 비단옷에 견주어 표현.  
2) 長春: 대흥사 초입구에서 해탈문까지 계곡을 말함.  
3) 桃花洞: 무릉도원의 복사골: 신선이 산다는 이상향.